

가격 폭락에 올 배추밭 67ha 폐기… 해남은 한숨의 들녁

“생산비는 커녕 또 빚만 지게 생겼다”



“괴롭 흘려 키운 배추를 출하도 못하고 갈아엎는 일을 매년 반복하고 있으니 죽겠소. 평년보다 배추 값이 40% 이상 폭락해 생산비는 커녕 또 빚만 지게 생겼으니다.”

지난달 24일 정성들여 가꾼 배추밭 3만3천여㎡(1만여평)를 갈아엎은 진애용(50·해남군 산이면 황조리)씨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진씨는 “5t 트럭 한 차에 225만원은 받아야 본전인데 200만원도 받지 못해 생산비 견지기는 애시당초 틀렸다”면서 “자식같은 배추를 내 손으로 뒤엎자니 속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8천200여㎡(2천500여평)를 폐기한 고광석(51·해남군 화원면 신덕리)씨도 “씨앗을 심을 때부터 물 걱정, 퇴비 걱정을 하느라 노심초사했는데 이렇게 폐기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라며 “이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 농민들 스스로 재배물량을 줄이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가격폭락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고씨는 “생산원가의 65%에도 못 미치는 보상액을 현실화해주는 한편 자자체나 농협 등이 대체작

물 개발 등 다양한 보완책을 서둘러야 농민들이 베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계율배추 주 산지인 해남군에서 배추를 무더기로 폐기할 수밖에 없게된 이유는 대량소비적인 일반 식당과 학교급식소 등의 김치 소비량이 크게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보다 세배면적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작을 이룬데다. 강원도 등 고랭지산 배추물량이 최근 대량 출하된 것도 가격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해남군 전체의 배추 폐기물량은 황산·산이·화원·문내·북일 등 5개면 67.3㏊에 달하며, 이 중 지난달 30일까지 15㏊가 폐기됐다. 배추를 폐기하고 받는 보상금은 생산비 대비 최저 보장가격인 10a(990m²)당 50만5천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해남군 관계자는 “최근 배추가격이 소폭 상승해 그나마 다행”이라며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김장 한포기 더 담그기’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강진산 친환경 무산김이요

지난달 30일 강진군 신전면 복섬 앞 해상에서 어민들이 친환경 어법으로 자란 첫 무산(無酸)김 2t을 채취하고 있다. 강진군은 내년 4월까지

총 30만㎥(800t)을 생산·30억 원의 어민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광양 동호안 봉고, 공동조사단 구성

광주지검 순천지청, 사고원인 규명·사후대책 수립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광양 동호안 재방 붕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학회가 응역자업을 수행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용역 수행 및 수사 등에 대한 공

동성설 의혹 등이 일어 각계 인사 7인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순천지청은 지난달 30일 재방 붕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학회가 응역자업을 수행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용역 수행 및 수사 등에 대한 공

동성설 의혹 등이 일어 각계 인사 7인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 활동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7인은 환경공학·지반공학·해양환경 등 관련 학계 교수 5인, 어민단체 1

명, 언론계 1명 등이다.

검찰은 그동안 동호안 재방이 붕

괴되면서 인근 특정폐기물 처리장에

서 발생한 침출수를 바다로 유입되

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 사태가 일어

나자 지난 10월 순천지청 박순배

검사를 팀장으로 검찰수사관, 영산강

유역환경청 직원, 광양시청 직원 등

10명으로 특별조사팀을 구성, 수사

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사고원인 규명 수사와 사후대책 수립에 참고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번 사태가 기업들의 안이한 환경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지난 10월 환경전담 검사를 뒤집증 단속기로 하고 최근 광양과 여수·순천 등 지역기업들에 자체 점검을 요청하는 한편 일부부터 검찰·전남도·여수시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내고장 자랑 영어로 술~술~

나주교육청, 초·중생 대상 영어말하기 대회

나주교육청이 관내 학생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영어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고장 자랑 영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나주교육청은 지난 3월 초·중학생 영어회화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 장학자료 ‘Naju, my pride my joy’를 발간·보급한 데 이어 이를 활용한 영어말하기 대회를 최근 개최했다.

조등부와 중등부로 나눠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각 학교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초등학교 56명과 중학생 39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나주교육청은 이번 대회에 앞서 그동안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장학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실시

하고 교육청 홈페이지나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원어민의 육성이 담긴 전자북 배너를 설치, 학생들이 수시로 접속해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계문화재단(대표 정광훈)이 이번 영어말하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에게 해외 체험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등지속적으로 후원하기로 협약을 맺어 체결, 영어교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서상탁 나주교육장은 “관내 모든 학생들이 고향 나주를 어느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관광 도우미가 되고 나아가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농식품부 친환경농업 평가

순천시 지자체 부문 대상

전남도는 농림수산식품부 주최 제6회 친환경농업대상 평가에서 순천시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또 친환경농업 우수지구 부문에서는 무안 몽탄지구(대표 장기광)가 우수상을, 생산자 부문에서는 순천 신광수(평화면)가 우수상을 받았다.

유기농공식품 부문에서는 농업회사법인 쿠미실란(대표 이동현)이 우수상을, 학교급식 부문에서는 영산포초교가 최우수상을 수상, 총 6개 부문 중 초기유통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전남지역이 수상했다.

순천시는 친환경농업의 근본인 땅 살리기 일환으로 습주읍 등 18개 읍면동에서 3천918㏊의 자운영 등 녹비작물을 재배하고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을 통해 액비를 친환경농업에 활용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10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

마을가꾸기 콘테스트

해남 방춘마을 대상

해남군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09년 창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콘테스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계곡면 강절마을에 이어 올해는 계곡

면 방춘마을이 전국 1천239개의 마을 중 최우수 마을로 선정돼 ‘창살기 좋은 마을’ 인증서를 받게 됐다.

방춘마을은 ‘방춘정(방춘서원)을 중심으로 조상의 일 찾기’라는 주제를 통해 마을전통 보愕찾기, 조상유래 찾기, 환경 가꾸기 등에 나섰다. 37세대 60여명의 주민들은 마을 뒷산인 아름드리 동백나무와 적송 군락지를 정비하고, 마을길을 따라 돌담도 쌓았다.

방춘마을 주민과 해남군이 서로 협력해 쾌적하고 이마다운 마을을 만든 결과 행정안전부 현장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면 방춘마을이 전국 1천239개의 마을 중 최우수 마을로 선정돼 ‘창살기 좋은 마을’ 인증서를 받게 됐다.

방춘마을은 ‘방춘정(방춘서원)을 중심으로 조상의 일 찾기’라는 주제를 통해 마을전통 보愕찾기, 조상유래 찾기, 환경 가꾸기 등에 나섰다. 37세대 60여명의 주민들은 마을 뒷산인 아름드리 동백나무와 적송 군락지를 정비하고, 마을길을 따라 돌담도 쌓았다.

방춘마을 주민과 해남군이 서로 협력해 쾌적하고 이마다운 마을을 만든 결과 행정안전부 현장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면 방춘마을이 전국 1천239개의 마을 중 최우수 마을로 선정돼 ‘창살기 좋은 마을’ 인증서를 받게 됐다.

방춘마을은 ‘방춘정(방춘서원)을 중심으로 조상의 일 찾기’라는 주제를 통해 마을전통 보愕찾기, 조상유래 찾기, 환경 가꾸기 등에 나섰다. 37세대 60여명의 주민들은 마을 뒷산인 아름드리 동백나무와 적송 군락지를 정비하고, 마을길을 따라 돌담도 쌓았다.

방춘마을 주민과 해남군이 서로 협력해 쾌적하고 이마다운 마을을 만든 결과 행정안전부 현장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한푼 두푼 모아 김장김치 선물 “뿌듯해요”

함평 대동학교초생 1년간 모은 동전 이웃돕기에

함평지역 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1년 동안 모은 동전으로 장만한 김장김치와 연탄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함평군 대동면 대동학교조직학 교(교장 흥원표) 5·6학년생들은 지난달 27일 학교 강당에서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아 150포기의 배추로 김장김치를 직접 닦았다.(사진)

어린이들은 이날 닦은 김장김치를 직접 닦았다. 어린이들은 이날 닦은 김장김치를 보여 관내 독거노인 30여 세대에 전했다. 이들은 또 30일부터 1천200여명의 연탄을 독거노인 6세대에 직접 배달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이웃돕기 행사는 전교생 130여명이 1년여 가까이 돼지저금통에 한푼 두푼 모은 162만원에 학교 동문들이 보낸 기탁금 100만원을 합친 262만원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어린이들에게 또 다른 소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된다.

김지운(6년) 양은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겠다 생각하니 흐뭇하다”고 활짝 웃었다.

흥원표 교장은 “이번 일은 연탄을 독거노인 6세대에 직접 배달

에 우리 아이들이 회의를 통해 직

접 결정한 일”이라면서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평=황운화기자 hwang@

공인증개자: 강영희
☎ 062-364-8700
H.P. 010-4608-3700

국민법률경매

국민법률경매